

# 지혜의 보고 佛書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8 ~ 2/24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스님	정토	6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만다라	Carlton Books	담앤북스
2	인생수업	법륜스님	휴	7	뒤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이말야	이말야	담앤북스	8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조계종 신불교기 중추원장 김기현	모과나무
4	밥값 했는가	도원스님 외 불광출판사		9	해 뜨니 낮이오 달 뜨니 밤이로다	조계종 신불교기 위원장 김기현	조계종출판사
5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경스님	마음의숲	10	수따니빠따 (빠알리원전번역)	일야스님	불광출판사



## 입적한 법정 스님과 최인호 작가 책 속에서 조우

김주원 기자 kimj4217@hyunbul.com

이 책은 2003년 4월, 길상사 요사채에서 가진 법정 스님과 최인호 작가의 네 시간에 걸친 대담을 엮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행복과 사랑, 삶과 죽음, 시대정신과 고독 등 11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깊이 있는 사색과 시적 은유로 가득한 언어를 주고받았다.

이 책은 원래 최인호 작가가 생전에 법정 스님의 기일에 맞춰 펴내려고 했다. 스님이 입적한 이듬해인 2011년, 암 투병 중에도 일찍히기로 써 내려간 장편소설 <낮의 도시>를 펴낸 최 작가는 이후 병이 깊어져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2013년 9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최 작가는 병이 깊을 중에도 반드시 법정 스님의 입적 시기를 전후해 책을 펴내라는 유지를 남겼고, 그의 뜻은 법정 스님 5주기를 즈음해 결실을 맺었다.

최인호 작가는 생의 말년에 왜 이 책을 마음에 크게 두었을까? 그 이유는 이 책의 '들어가는 글'과 '나오는 글'에 잘 드러난다. 설퍼라는 잡지에 각기 다른 소재로 인기 연재물을 쓰면서 시작된 첫 만남 이후 30년 동안 두 사람은 열 번 남짓 만났다. 하지만 수필가로서, 소설가로서 당대를 대표한 법정 스님과 최인호 작가는 때로는 가까이에서, 때로는 멀리서 서로를 응원하고 독려하며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둘만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최인호 작가의 대표작인 불교 소설 <길 없는 길>이 법정 스님의 한마디에서 시작될 사연이라든가, 빗속에서 헤어지며 친형제와도 같은 깊은 애정을 느끼는 장면들이 그러하다. 그래서 최 작가는 생전의 그 인연을 이 책을 통해 이어 가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또 한 권의 책 속에서 법정 스님과 동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을 것 같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의 깊은 인연은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오롯이 남았다.

이 책은 액자적 구성을 취한다. 2010년 3월 11일 법정 스님이 입적한 뒤 최인호는 마치 작군의 기지를 엿마듯 스님의 빈소가 마련된 길상사로 숨어들었다. 최 작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해 1월에 <인연>이라는 수필집을 펴낸 이후 암 투병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그 역시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문상을 마친 최 작가는 길상사 경내를 건다가 낚이 익은 요사채의 출입문 앞에서 절음을 멈춘다. 기억을 더듬던 최 작가는 그곳이 7년 전 법정 스님과 함께 네 시간의 대담을 나누었던 장소라는 사실을 떠



2013년 4월 법정 스님과 최인호 작가가 길상사 요사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당시 모습. <사진제공=덕조 스님>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않네**  
법정·최인호 지음  
여백 펴냄  
1만2천원

2003년 4월 길상사서의 대담 정리  
사랑, 가족, 진리 등 다양한 주제로  
"최고의 용기는 바로 용서 구하는 것"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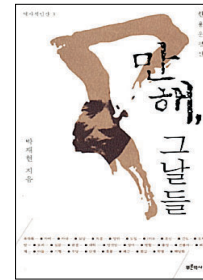
2003년 4월의 그날, 월간 <설퍼>가 지령 400호를 기념해 마련한 대담을 통해 법정 스님과 최인호 작가는 길상사 요사채에 마주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든 것은 받아들이기에 따라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스님의 말을 시작으로 두 사람의 대화는 사랑, 가족, 자아, 진리, 삶의 자세, 시대정신, 참 지식, 고독, 배움, 죽음으로 이어진다. 대화 형식을 취하기에 미사여구가 생략된 그들의 언어는 주제 깊은 서(書) 언(言) 행(行)은 여전한 고운 향기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자의 종교관에 바탕을 두고 대화를 풀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두 갈래가 아니다. 문학이라는 '종교'의 도반으로서 한 시대를 같이 느끼고 살아온 그들이기에 두 사람의 언어는 절묘한 화음을 이루며 깊고 넓은 울림을 만들어 낸다.

베움에 대해 최 작가가 스님께 물었다. "스님 요즘 사람들은 필요없는 물건만 나에게 주는 것 같은데 살아있을 때 나눠야 한다는 말씀 참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그러자 법정 스님이 답했다. "사람도 살아있을 때 사람 구실을 하듯이 물건도 지냈던 사람이 죽으면 그 빛을 잃는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작은 염주라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 작가는 용서라는 개념도 여쭈었다. 법정 스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먼 여행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마음하고는 투두어 냉장고처럼 분리돼 있어요. 용서라는 말은 어딘지 수직적인 범새가 나오. 비슷비슷한 허물을 지닌 중생들끼리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서로가 감싸 주고 받아들이는 관용정신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최고의 용기는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끝에 이르러 최인호 작가가 묻는다. "스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법정 스님이 답한다. "몸이란 그저 내가 잠시 걸친 옷일 뿐인 걸요." 지금은 고인이 된 두 사람의 맑고 깊은 서(書) 언(言) 행(行)은 여전한 고운 향기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 만해 스님 평전... 역사적 사건 장면 처리



**만해, 그날들**  
박재현 지음  
푸른역사 펴냄  
1만5천원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 1879. 8. 29~1944. 6. 29) 스님은 한국 근현대 인물 중 가장 폭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깨달음의 길을 걸었던 수행자였으며, 격랑의 근대사를 온 몸으로 안았던 실천적 지식인이었고, 시대의 아픔과 진리의 열망을 언어로 노래한 시인이었다. 또한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 독립을 부르짖던 민족주의자요, 항일운동가였다. 이 모든 것이 66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간 만해 스님을 평하는 수식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렇게 한국불교 근현대사서 가장 다각적 평가를 받는 만해 스님의 열반 7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다양한 선양 사업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만해 스님 평전인 <만해, 그날들>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성과물이다. 저자는 만해 스님 평전을 쓰려고 했다. 하지만 이 책은 흔한 평전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다. 모든 사실은 진술되는 순간 선택되고, 선택하는 행위에는 이미 평(評)이 내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평전'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 일생에 대해 평론을 곁들여 적은 전기"라고 나와 있다. 또

### 철학자, 평전 새 지평을 열다

### 만해관련 연구 성과물 반영

'평론'이란, "사물의 가치, 우열, 선악 따위를 평가하여 논할, 또는 그런 글"이라고 적혀 있다. 책 끝 후기를 보면 저자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저자는 "모든 진술은 끝내 사실의 진술이 되지 못하고 가치의 진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진술하는 행위는 그 자체에 이미 진술자의 평가가 내재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따라서 흔히 보는 평전 형식은 서술자의 주관성이 이종으로 주입된 과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길이 없다. 결국 나는 평을 포기했다. 어쩌면 실패일지도 모른다."라고 토로한다.

왕조가 뒤집어지고 나라가 사라져도 백성들은 고요하기를 했다. 백성들은 뒤집어진 세상에서 꾸역꾸역 살아내기만 했다. 나는 그 고요함의 정체가 너무 무서웠다. 만해 스님의 드러난 자취보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의 절박함에 나는 몸서리쳤다"고 고백한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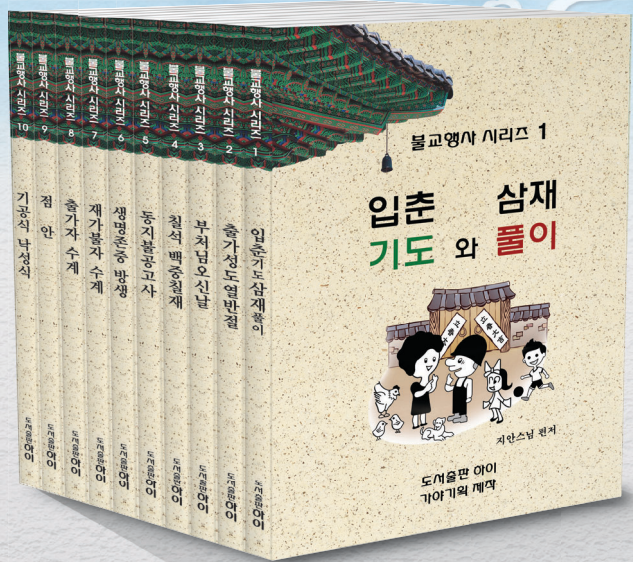
책 속으로 들어가보자. 일제강점기, 살아남으려는 온갖 방편이 와글거리는 속에서 선사(禪師)들은 맹렬한 화두 참구를 통해 세상을 관통하는 가피를 길을 찾아냈다. 그 가운데 만해 한용운 스님이 있었다. 그는 조선불교의 개혁을 역설했고, 신사조(新思潮)를 수용했으며, 대처제(帶妻制)도 옹호했다. 해방이후 반일(反日)과 반공(反共)이 한국 사회의 주도적 이념이 되면서, 불교개혁론은 친일의 혐의를 뒤집어졌다.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명분은 이승만 정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강렬했다. 또한 195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불교전화운동은 쏟아져야 할 것과 남겨둬야 할 것을 가릴 틈도 없이 밀어닥쳤다. 결국 한국 불교사서 만해 스님의 족적은 일정부분 묻어두어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선사'나 '스님'보다는 '선생'으로 부르는 것을 편했다. 그는 우리에게 항일독립투사나, 민족대표 33인, 혹은 그의 참학을 쓴 시인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그의 적극적인 정치사회적 활동은 선사로서의 모습을 희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저자는 말한다. 그에게라면 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에게라면 어떤 대답이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만해, 그날들>에서 만해가 답한다. 이 책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과정의 정치사회적 격동의 지층들이 압축적으로 그려져 있다. 러일전쟁과 청일전쟁 당시 조선의 내부사정, 한일병합 전후의 속사정,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 삼천령, 만해 피격사건, 동학운동, 취척논쟁, 3.1운동 전후의 사정 등이 만해 스님의 눈을 통해 박진감 있게 묘사됐다.

만해는 선사(禪師)다. 무(無)를 넘나든 선사의 아득한 내면은 종잡기 어렵다. 저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간학선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다. 이미 출판된 <깨달음의 신화>와 <한국 근대불교의 타자들>을 통해 피력된 저자 박재현의 학술적 전문성이 이 책에 녹아들어갔다. 저자를 통해 선사 만해의 속내와 그의 날들은 기어코 복원됐다. 이 책은 만해의 저작물 및 만해 관련 연구성과물, 그리고 한국 근대사 분야의 학술적 성과까지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국가기록원, 독립기념관 등에 소장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공판기록 등 관련 자료들도 압축적으로 녹여냈다. 그러면서 도 책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단순 제시하지 않고, 마치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기술하고 있다. 책에서는 역사적 사건을 장면으로 처리하는 기술 방식을 취해 마치 한 편의 다큐 영화를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저자는 역사를 밖에서 관전하지 않는다. 연대기적 서술방식을 버린 저자는, 깊은 지층을 헤집다가 마침내 그 지층 속에 파묻혀 버린 사람처럼 보인다.

김주원 기자

# 불교행사 지침서 시리즈 전 10권 출간!



**알기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안스님이 엮어가는  
불교행사 시리즈 전 10권 출간!



- 행사시리즈 1: 입춘삼재풀이(140쪽) 입춘정의, 입춘기도준비, 입춘기도순서, 입춘기도진행, 삼보통칭 삼재풀이 불교식, 신중칭, 염송기도 삼재풀이 민속식 삼재풀이 개별식, 입춘축, 삼재부적
- 행사시리즈 2: 출가성도열반(202쪽) 출가절, 법회준비, 법회식순, 법회진행, 출가절독경예찬, 성도절, 법회준비, 법회식순, 법회진행, 성도절독경예찬, 열반절, 법회준비, 법회식순, 법회진행, 출가절독경예찬
- 행사시리즈 3: 부처님오신날(160쪽) 봉축행사 계획, 봉축행사 준비, 연등 만들기, 연등 설치, 봉축법요식 식순, 법요식 진행, 법요식 노래악보, 봉축예경, 연등공양 공덕
- 행사시리즈 4: 칠석과 백중날(180쪽) 칠석의례, 칠성본풀이, 칠석기도 준비 진행, 우란분절 준비, 우란분절 식순, 우란분절 진행, 영가시식
- 행사시리즈 5: 동지불공고사(150쪽) 동지정의, 세시공숙, 동지불공 준비, 동지불공 순서, 동지불공 진행, 삼보통칭, 신중권공, 신중불공, 신중염송, 영단제례, 영가시식, 동지고사, 팔죽 예화
- 행사시리즈 6: 방생(175쪽) 방생이란, 방생준비, 방생식순, 방생진행, 연지대방생문, 어류방생, 어류방생기도문, 조류방생, 조류방생 기도문, 방생기도 소원지, 방생사진, 방생이야기, 방생공덕 등
- 행사시리즈 7: 재가불자수계(150쪽) 계율삼사칠중, 소승오계, 십계, 십중대계, 사십팔경계, 수계란, 어린이 수계식, 성인불자 수계식, 거사불명, 보살불명
- 행사시리즈 8: 출가수계식(150쪽) 계율, 소승계 분류, 십계, 사십심계, 구족계, 비구계, 비구니계, 대승계 분류, 십중대계, 사십팔경계, 출가 수계식, 수계준비, 수계식순, 수계진행, 법명
- 행사시리즈 9: 점안의식 상(179쪽) 점안이란? 불보살 복장의식, 불보살 점안 준비, 불보살 점안식순, 불보살 점안 진행, 법회 진행, 나한 점안의식, 사천왕 점안의식
- 행사시리즈 10: 점안의식 하(180쪽) 점안이란? 점안 준비, 시왕 점안의식, 조탑 점안의식, 가사 점안의식, 금은전 점안의식

도서출판 아이 공급원 가야기획 TEL: 02-379-2400, 031-948-0340 FAX: 031-948-3291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